

길면의 「누런 벽지」: ‘벽’을 마주한 ‘비정 상성’과 ‘창조성’의 경계 탐색

신 현 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국문초록

본 논문은 샬롯 퍼킨스 길면(Charlotte Perkins Gilman)의 「누런 벽지」(“The Yellow Wallpaper”)에서 ‘벽’의 의미, ‘비정상성’과 ‘창조성’의 경계 탐색, 그리고 이런 시도가 여성의 구속적 현실에서 지나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누런 벽지」는 여성해방, 여성주의적 독서와 글쓰기 등에 관한 강력한 영감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다.

미국 페미니즘 문학의 중요한 초기 저작인 「누런 벽지」는 소위 ‘안정 요법’(rest cure)과 연관된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문제를 다룬다. 작품의 여주인공에게 처방된 ‘안정 요법’은 딸 캐서린(Katharine)을 낳은 후 ‘산후우울증’의 진단을 받은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다. ‘가능하면 가정 내의 생활에 한정해서 살면서 지적인 생활은 자제하라’는 여성억압적 편향이 뚜렷한 이 처방은 오히려 작가를 더 심각한 정신쇠약으로 몰고 간다. 작가는 이 처방이 유발하고 강화하는 성 편향적인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본 논문은 ‘벽’을 마주하여 진행되는 여주인공의 ‘비정상성’이 긴박한 글쓰기의 과정에서 어떻게 ‘창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벽’ 너머의 세상을 꿈꿀 수 있을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비밀 일기 식으로 전개되는 작품의 형식을 살펴보고 여주인공 화자가 처한 상황, ‘벽’의 의미와 그를 둘러싼 ‘비정상성’과 ‘창조성’의 경계, 끝으로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성 억압적 현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주제어 ■ 벽/벽지, 안정 요법, 비정상성, 창조성, 여성주의

* hester@mail.knou.ac.kr

1 들어가기

샬롯 퍼킨스 길먼(Charlotte Perkins Gilman, 1860 - 1935)은 미국의 저명한 페미니스트이자 사회학자로 여러 문학작품을 남겼으며 사회개혁을 위한 강연들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유토피아적 성향이 강한 길먼은 완전히 여성으로만 구성된 격리·독립된 사회를 그린 유토피아 소설 『여자만의 나라』(*Herland*, 1915)를 통해 전쟁, 갈등, 지배와 종속 등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질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¹⁾ 오늘날 여성주의의 대표적 베스트셀러 텍스트이자 영문과에서 자주 읽히는 「누런 벽지」(*"The Yellow Wallpaper"*)는 1892년 『뉴잉글랜드 매거진』(*The New England Magazine*)에 발표된 미국 페미니즘 문학의 중요한 초기 저작이다. 이 단편소설은 1973년 ‘페미니스트 출판사’(Feminist Press)를 통한 재출판과 함께 2차 페미니스트 비평의 흐름을 타고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누런 벽지」는 ‘여성해방, 여성주의적 독서, 그리고 여성주의적 비평의 가능성·한계·위험 등에 대해 강렬한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우화’로 여겨져 왔다(DeKoven 38).

「누런 벽지」는 멀리 떨어진 고택에서 요양치료를 받는 일인칭 여성 화자의 일기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여성 화자가 처방받은 ‘안정 요법’(rest cure)과 연관된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문제를 다룬다. 여성으로부터 일체의 지적인 활동

1) 길먼이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가정성을 제안하면서 여성 주체의 치유를 모색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소개로는 손정희, 「길먼과 글쓰기: 새로운 가정성을 통한 여성 주체의 치유 모색」 참조.

을 박탈하고 침대 위에서의 ‘안정’에 묶어놓는 ‘안정 요법’은 길먼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반영한다.²⁾ 길먼은 딸 캐서린(Katharine)을 낳은 후 ‘산후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당시 저명한 신경과 의사인 사일러스 미첼(Silas Weir Mitchell)의 처방을 받는다. 미첼 박사에 의해 19세기 말에 대중적으로 퍼진 ‘안정 요법’ 처방을 길먼 자신의 말로 옮기면, “가능하면 가정 내의 생활에 한정해서 살아갈 것, 늘 아이를 곁에 둘 것……식사 후에는 한 시간 누워있을 것, 지적인 생활은 하루에 두 시간만 할 것, 그리고 절대로 펜, 붓, 연필을 건들지 말 것”으로 요약된다(Gilman, *The Living of Charlotte Perkins Gilman* 96). 이런 ‘안정 요법’은 길먼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더 심각한 신경쇠약으로 몰고 갔다. 실제 그런 처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의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가의 비판적 시선이 집중되는 지점은 ‘과학’을 표방한 이 처방이 유발하고 강화시키는 성 편향적인 사고의 위험성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누런 벽지」라는 글쓰기 자체가 길먼이 스스로의 삶에 주체적으로 개입하며 대안적으로 내세운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작중의 여성 화자가 극단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파편적으로나마 글쓰기를 통해 정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수한 경험을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 지를 시사한다(Gilman, “Why I wrote ‘The Yellow Wallpaper?’” 271)

2) ‘안정 요법’은 하나의 문학적 소재를 넘어서 당대 여성의 질병과 관련하여 의학계에서도 주목된 바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의학도서관인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을 보면, 「누런 벽지」가 의학 분야에서도 어떻게 주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https://vsearch.nlm.nih.gov/vivisimo/cgi-bin/query-meta?query=yellow+wallpaper&v%3Aproject.nlm-main-website>. 2024년 8월 6일 접속.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은 ‘벽’/‘벽지’를 마주하여 진행되는 여주인공의 ‘비정상성’이 긴박한 글쓰기의 과정에서 어떻게 ‘창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한계를 뚫은 형태로나마 ‘벽’/‘벽지’ 너머의 세상을 꿈꿀 수 있을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비밀 일기로 전개되는 작품의 형식을 살펴보고 여주인공 화자가 처한 주변 상황과 ‘벽’/‘벽지’를 마주한 화자의 관찰과 의미 탐색, ‘비정상성’과 ‘창조성’의 경계에서 드러나는 여성적 현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비밀 일기’의 형식과 화자가 처한 개인적·시대적 맥락

「누런 벽지」는 화자의 비밀 일기로 ‘인정 요법’에서 특히 중요하게 금지한 작업인 바로 그 ‘글쓰기’이다. 화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특히 글을 쓰거나 기타 지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도록 남편과 가족의 보살핌·감시를 받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소 비밀스럽게 조금씩 일기를 써 내려간다.

이 독특한 여성 화자는 ‘정신이상’(insanity)의 접경에서 오락가락 하는 상태, 때로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장면에서도 자신의 특정한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려고 애쓴다. 이 기록들은 서로 다른 길이의 12개의 ‘개별 입력 항목’(entry)들의 나열로 구성된다. 이런 특징은 화자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주변의 감시와 관찰을 피해서 기습적으로 글을 썼다가 멈

쳤다가 하면서 기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글을 쓰는 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몹시 지친다(648).

「누런 벽지」의 위와 같은 서술 형식으로 인해 화자가 그 순간 생각하고 느끼는 상황의 강렬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기록의 상황과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기록된 내용의 사실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들도 발생한다. 예컨대, 화자가 머물게 되는 곳으로 마치 버려진 듯 기괴한 저택의 본 모습과 정확한 용도를 비롯하여, 보기 흉한 벽지, 바닥에 고정된 장식 없는 침대,³⁾ 창살 박힌 창을 특징으로 하는 그녀의 방의 성격과 용도 역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또한 침대 뒤의 벽지는 언제, 왜 찢겼는지, 방 주변의 얼룩이나 침대가 갇아 먹힌 듯한 흔적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자들은 화자의 기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적극적인 추측과 상상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글쓰기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의식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나마 글을 쓰는 데 진심이며 다른이의 눈에 안 뜨이려고 기를 쓰면서 이렇게까지 글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글쓰기에 대한 화자의 자기 정당화는 우선 산후 우울증으로 진단이 내려져 처방받은 ‘안정 요법’에 대한 화자의 이견과 반발에서 잘 드러난다. 화자에게 내려진

3) 침대를 고정해놓지 않으면 이를 이동시켜서 올라서서 목을 매 자살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스토리에서도 뒷부분에 그런 암시가 있다. 밧줄은 벽 속에 있는 여성이 빠져나와 도망치려 할 때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밧줄이 지금 그녀 자신을 묶고 있는 것으로 불여지도 있다(But I am securely fastened now by my well-hidden rope, 656). 주인공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녀의 눈에 시간과 공간은 조각나 있고 그녀는 그 조각들을 거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어 붙이고 있는 셈이다.

처방은 “다시 좋아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된”(absolutely forbidden to “work” until I am well again)⁴⁾ 것인데 화자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Personally, I disagree with their ideas, 648)고 말한다. 타인들의 주장이자 의사 남편으로 대표되는 소위 전문가의 처방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화자는 “개인적으로 나는 흥분과 변화를 동반하는, 내 성격에 맞는 일이 내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Personally, I believe that congenial work, with excitement and change, would do me good, 648)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한다. 남편이 중심에 있는 사회가 다 그렇다고 하니 자신의 의견은 공적인 효력에 못 미치고 사적인 의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화자는 그런 공적인 진단에 자기의 의견을 맞세운다. ‘개인적으로’(personally)라는 거듭 사용된 단어는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내세워 처방을 내리고 또 그것이 남들의 다른 상황에는 얼마나 적절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화자 자신의 경우에 만큼은 그렇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저항적인 면모를 띤다.

이렇게 화자의 글쓰기는 일차적으로 어떤 종류든지 간에 일 자체의 금지에 대한 저항에서 동력을 얻고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글쓰기라는 작업 자체가 지니는 독특한 특징도 맞물려 있다. 이런 점을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화자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글을 쓰는 ‘종이’가 ‘죽은’(dead) 상태에 있기에 “자기 마음에는 큰 위안”(a great

4) Charlotte Perkins Stetson, “The Yellow Wall-paper. A Story,” *The New England Magazine*, 11:5 (January 1892) 648. 이후 인용은 필요한 경우에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쪽 수만 병기함.

relief to my mind, 647)이라고 말한다. 화자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든 적어야 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안심이 되는 상황이다(I must say what I feel and think in some way—it is such a relief! 647). 이 ‘죽은 종이’는 화자가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 이야기, 혹은 이미 여러 차례 시도했을 법하지만 귀 기울여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무시된 이야기를 털어놓는 공간이 된다.

이와 같이 화자에게 있어서 종이는 일종의 해방적인 영역이 되는 한편, 화자와 종이가 ‘협업’하여 구체적인 글자들로 구현되는 과정은 화자의 행위가 가정적·사회적으로 저항적인 의미를 띠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자에게는 글을 쓰는 일이 ‘안정 요법’에서처럼 절대 금해야 할 핵심 작업이 아니라 “그저 조금만 써도 무겁게 누르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If I were only well enough to write a little it would relieve the press of ideas and rest me, 649) 일인 것이다. 화자의 글쓰기에 남아 있는 그 어떤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적어도 화자가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왜 이렇게 예민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왜 때때로 남편 존(John)에게 “이유 없이”(unreasonably, 648) 화가 치미는지에 대해 자각하고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이유들과 그 이유들의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의 원인을 찾아가는 투혼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화자는 “하지만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But what is one to do? 648)라고 체념한 듯한 모습을 상시적으로 취한다. 이런 무력감에 대한 대처는 작가 길먼 자신의 평생의 과제이기

도 하였다. 길먼은 그녀 나름의 전투적인 페미니즘과 그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사회적 실천의 와중에도 좁은 의미의 젠더 논의의 틀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커다란 시대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자서전은 24살에 ‘자부심 넘치는 힘’(proud strength)을 느끼다가 불현듯 ‘경멸스러운 무력감’(contemptible feebleness)으로 빠져들었던 경험을 상기시킨다. 이후 그런 무력감에 저항하듯 40년 이상을 정신적·육체적 ‘병약함’(infirmary) 속에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은 고행과 박탈감과 피로가 스며든 과정이었다고 한다.⁵⁾

위의 맥락을 볼 때,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무력감은 우선은 화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특정한 성에 대해 더 억압적이고 강박적으로 작동하는 젠더 차원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더 확장된 사회적·시대적 한계에 닿아 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길먼이 이 작품을 출판한 시기가 히스테리(hysteria)가 부유층들이 애용하는 일종의 ‘유행’(fashionable) 질병이고 세련의 표시로 여겨졌던 때와 겹쳐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Delchamps 109).⁶⁾ 또한 히스테리의 증가를 미국 우월주의와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경향도 등장하였다. 즉, ‘모더니티’로 명명되는 근현대성이 고도로 구현된 선진 문명과 미국 수준의 나라에서 그것도 부유한 백인 여성, 혹은 ‘정신 두뇌 노동자’(brain-workers)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질

5) Charlotte Perkins Gilman, *The Yellow Wallpaper And Selected Writings* (Hachette Digital, 2009)의 7장 “Love and Marriage” 참조.

6) 이 대목과 관련하여 Delchamps가 제시하는 당대 맥락에 대한 설명은 참조할 만하다. 이 작품의 소재가 예외적인 것이 아님은 1860년~1880년 무렵 개업 약사와 미국의 대중이 신경쇠약(neurasthenia, 신경에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우울증세)과 히스테리(hysteria,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이 질병들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관련된 논쟁이 대중적으로 퍼진 상황(109)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병이라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발전상을 증명해준다는 논리였다. 이를테면, 이런 무기력감의 이면에 특이하게 자리 잡은 또 하나의 현상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발현하는 히스테리인데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 여성의 이런 증상을 소위 ‘선진적인’ 문명세계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트로피로 삼으려는 당대 사회의 복합적인 중층 심리가 밑그림으로 깔려 있다. 이 논리가 확장되어 가톨릭교도, 남부인, 육체노동자, 인디언 원주민, 흑인은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Delchamps 109).

이렇게 서구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에 침윤된 위와 같은 생각은 여성에 대한 논리에서도 확장된다. 즉, 여성이 ‘가정의 천사’라고 주장되고 또 그 물질적 조건이 가능한 ‘선진적’ 상황 자체가 히스테리가 발현할 가장 좋은 조건임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생산력이 발전된 선진문명 사회에서 남성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한 가정을 부양하고 여성은 그 안주인으로서 가정 바깥의 노동 굴레에서 놓여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남성의 활동만으로 물질적인 조건이 마련되는 ‘이상적인’ 가정에서 ‘가정의 천사’ 역할을 하다가 여성에게 발생하는 히스테리 증상을 ‘성공’의 증표로 삼을지언정,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에는 주체적인 창조적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착되고 광고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문제적 상황의 복합성은, 비록 상당 부분 증상층계급에 더 심각하게 관계된 것이지만,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논리가 역설적으로 성차별적 분업에 따른 가사노동의 의무로부터 벗

어나는 기제(mechanism)로 활용된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즉, ‘상류층의 고상한 여성성’(genteel femininity)이라는 이상화된 외피를 두르거나 그것의 부정적 실현이자 표현인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라는 극적인 형식을 취하면서 여성이 가정의 의무를 뒤틀고 그로부터 놓여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신경쇠약과 히스테리는 의식적·무의식적 차원에서 다소는 가식적인 가장(disguise)의 방식으로 여성이 ‘성 역할’에 따른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일단 신경쇠약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여성들이 지겨운 집안 살림과 성적인 의무, 그리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억압적인 이데올로기의 고착적 형식인 신경쇠약이 역설적으로 성차별적 논리가 강제하는 부당한 의무들과 충돌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화자가 맞닥뜨린 현재의 특수한 상황은 위와 같이 복합적인 상황과 맞닿아 있다. 화자는 남들보다 더 눈에 띄거나 그와 반대로 아예 열외가 되어 시야에서 배제되는 특이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화자의 일기는 주변 인물과 상황에 대한 남다른 통찰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보의 누락이나 단절, 정보의 위치 전도 등 부정적 증상도 드러난다.

3

일기 내용: 남편에 대한 관찰 및 ‘벽’/‘벽지’에 대한 탐색

화자의 일기는 그녀가 처한 상황과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 인과 관계의 단서를

멀찍이 배열한다. 예컨대 “존과 나처럼 그저 보통 사람들이 여름 동안 쓸 고풍스러운 홀들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It is very seldom that mere ordinary people like John and myself secure ancestral halls for the summer, 647)라는 작품의 첫 문장부터가 그러하다. 이어 화자는 이 고풍스러운 집이 “귀신 들린 집”(a haunted house, 647)처럼 무엇인가 이상하니 유난히 값싸게 임대된 것이 아니겠냐며 나름의 상황판단과 논리를 펼친다. 하지만 이 첫 대목의 화자의 말들에는 가장 중요한 점, 즉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 자신들이 이렇게 ‘아주 드문 일’을 하여 외진 곳을 장기 임대해 들어온 핵심적인 이유가 누락되어 있다. 사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며 지금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들이 고풍스러운 저택을 확보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가족이 멀리 떨어진 고풍스러운 저택을 빌리게 한 화자의 극심한 신경쇠약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곳에 온 이유가 “순전히 나 때문”(solely on my account, 648)이라고 언급되듯이, 비록 그 진술과 연관되어 가까이 기록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이기는 해도, 지금 상황에 대한 원인이 망각되지 않고 기록된다.

화자의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원인이 완전히 누락되지는 않고 어딘가에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화자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남편에 대한 것이다.

존은 나를 비웃는다, 물론. 하지만, 결혼에서 그 정도는 누구나 예상하지.

존은 극단적으로 실용적이다. 그는 종교적 신념 같은 것에 대해 참을성이 없고 미신 따위를 극렬히 두려워하고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숫자로 제시될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놓고 조롱한다.

John laughs at me, of course, but one expects that in marriage⁷⁾.

John is practical in the extreme. He has no patience with faith, an intense horror of superstition, and he scoffs openly at any talk of things not to be felt and seen and put down in figures. (647)

위의 인용은 존의 ‘실용주의’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범위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존은 ‘종교적 신념,’ ‘미신’ 등에 대해 우호적인 인물은 아니다. 존에게 있어 과학 바깥은 ‘미신’의 영역인데 그의 과학의 틀이 너무 좁다보니 역으로 ‘미신’에 많은 영역을 내주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과학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과학으로 해명되지 못하는 영역의 광대함 사이에 존의 불안감이 위치한다. 동시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현재 아내의 성향에 대한 존의 거부감이 고조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아내의 성향을 바로 질병의 원인이자 증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존이 볼 때, 아내의 질병에는 아내의 성향 외에 달리 합당한 원인이 없다. 화자가 남편으로

7) “하지만, 결혼에서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but one expects that in marriage)”라는 말을 풀면 ‘대체 결혼에서 그 이상 무엇을 더 기대하겠느냐’라는 의미이다. 본문의 맥락을 보충하기 위해 이 대목의 의미를 좀 더 부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① 먼저, ‘기대’와 ‘실제’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럴 때 여기의 ‘기대’가 얼마나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며 현실적인 것인지 점검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의 ‘실제’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또한 ‘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이며 이 크기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역시 주목할 점이다. ‘기대’가 너무 헛된 것인지, ‘현실’을 너무 낮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인지가 좀 더 파악될 필요가 있다. ② 그 다음으로, 그 ‘차이’를 인지 할 뿐, 그 ‘차이’를 순리적/원리적으로 해소해 가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종합적인 맥락에서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해 파국적인 상황에 처한 것은 결혼 관계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기대’, ‘실제’, 그 사이의 ‘차이’ 등에 대한 화자의 불명확한 인식과도 관계될 수 있다.

부터 힘들어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화자는 현재의 상황이 고통스러운데 반해, 남편은 화자가 고통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 멈춘 채 만족하고 있다는 점이다(안동현 62). 이 대목을 보면 아내의 질병과 증상에 대해 순환논리에 빠져 있는 존 자신이 아내 못지않게 신경쇠약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화자는 남편 존의 이런 면이 그저 일반적인 차원의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상당 부분 바로 자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친다. 이렇듯 화자는 남편의 극단적인 실용적 성향을 지적하나, 남편의 이런 반응이 자신의 상황과 밀착되어 있음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도 화자의 진술이 주변 인물이나 사물, 상황에 대해 일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객관적인’ 진술과 묘사를 띠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육체적·심리적 상황에 대한 진실이 얼마간 누락되거나 가려져 있는 진술이기도 하다. 사실 이 작품에서 화자의 질병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조명되지 못하거나 그와 관련된 남편의 문제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현상은 양가적인 측면을 내포한다. 한편으로 이 불명확한 상황이 화자의 혼란스러운 인식을 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을 규명할 단서가 좀 더 멀리 자리한 더 큰 사회적 맥락에 있음을 암시하는 단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편을 관찰하며 기록해가는 과정에서 화자는, 논리적인 근거에 입각해서라기보다는 다소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듯이, 자신의 신경쇠약의 원인에 상당히 근접한 발언을 하기도 한다. 병리학적으로 믿기 힘든 일인칭 화자의 기록이자 처음에는 그

림직했다가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정신착란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화자 자신과 주변 상황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글쓰기의 중요성은 더 부각된다.

존은 의사이다. *어쩌면* -- (물론 나는 어떤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은 죽은 종이이고 그래서 내 정신에는 큰 위안이 되고 있으니까) -- *어쩌면* 그것이 내가 더 빠르게 몸이 낫지 않는 하나의 이유일지 모른다.

John is a physician, and *perhaps*—(I would not say it to a living soul, of course, but this is dead paper and a great relief to my mind)—*perhaps* that is one reason I do not get well faster. (647)

화자는, ‘어쩌면’(perhaps)이라며 단정적인 인상을 피하고자 하지만, ‘필시’ 남편 존이 의사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게다가 의사라는 권위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직감한다.

남편 존은 아내의 정신적 질병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권위, 그리고 집안의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친구와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의견과 판단에 동의하도록 설득한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도 허용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확산되지 못하게 주변에 벽을 치고 그것들을 좁은 공간에 밀어 넣으려고 한다. 존은 아내의 병이 “일시적인 신경쇠약이며 약간의 히스테리적인 경향”(temporary nervous depression—a slight hysterical tendency, 648)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판단을 남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한

다. 그는 아내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요양에 필요한 집을 세내고 아내를 ‘특정한’ 방에 있도록 하고 엄수해야할 시간별 일정표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존은 아내에게는 그녀가 처한 병의 실상을 적절하게 알리고 논의하기보다는 환자 본인으로부터 그 실상을 감추고 ‘별것이 아니라고’ 감춘다.

이와 같이 남편이자 의사로서의 소위 전문가적 입장에서의 진단은 의사와 환자를 하나의 틀에 묶고 일정한 육체적·정서적·정신적 반응들을 촉발하는 하나의 발화 행위이다(Delchamps 108). 그 진단은 강력한 공적 성격을 띠면서 남성의 목소리로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제하고 그녀로 하여금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 명령한다(Treichler 65). 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은 앞서 지적했듯 ‘죽은 종이’로부터 그녀가 위안을 받는 대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종이는 화자를 가두고 있는 ‘벽’/‘벽지’라는 또 다른 ‘면’과 대비된다. 즉, 여전히 ‘벽’/‘벽지’가 남성 혹은 주류 지배적 시각에 의해 기록된 지면으로 여성이 빠져나와야 하는 감옥과 같다면, 아직은 작디작을지라도 ‘종이’는 그 벽과 대조를 이루는 해방의 공간이다. ‘종이’는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방해받지 않고 기록할 수 있는 지면이다. 이는 ‘종이’가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런 이유로 글쓰기는 화자의 숨막히는 호흡을 열어주면서 창조적인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을 지닌다. 이후에 ‘종이’의 역할이 억압적인 벽면을 향해서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분명치 않다.

남편에 대한 관찰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화자의 일기가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성취는 ‘벽’/‘벽지’에 대한 탐구이다. 여주인공에게 ‘벽’은 다양한 층위에서의 의미를 띤다. 예컨대, ‘벽’은 여주인공의 삶과 일상을 가로막고 있는 대상일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오감이 집중된 대상, 더 나아가서는 창작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도구적 차원에서 글쓰기가 수행되는 (‘종이’와 같은) 물리적 공간이자 지면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

제목에서 드러나는 벽지의 색깔부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의 ‘yellow’는, 예컨대 고희의 그림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따뜻하고 밝고 온기가 돌며 역동적이기도 한 그런 노란색이 아니다.⁸⁾ 이 작품의 노란색은 누렇게 뜬 색깔이다. 이럴 때의 노란색은 질병의 색깔로 여겨지며 환자의 병색을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비겁함’(cowardice)과 연관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마치 억압적인 가부장 사회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지금 이 여성 화자의 상황을 의미하는 면도 있다.

‘노란색’의 의미는 인간의 기질(humor) 유형에 대한 논의에 닿아 있다. 이때의 ‘humor’는 ‘웃음’을 유발하는 특징이기보다 사람의 ‘기질’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2천 4백여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자신의 기질론에서 그전의 전통적인 네 성격(four temperaments)에 상응하여 네 가지 유형의 기질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고 그 후로도 기질론이 이어져 왔다. 사람의 기질을 특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보자면, 다혈질

8) 고희에게 있어서 노란 색의 중요성은 ‘노란색의 시기’(yellow period, 1886-90)로 명명되는 것에서부터 잘 알 수 있다. Holbrook Jackson이 명명한 하듯 ‘노란 1890년대’(Yellow Nineties)라고 알려질 정도로 노란색이 그 시대정신을 표출해온 풍부한 사례와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Sabine Doran, *The Culture of Yellow: Or, The Visual Politics of Late Modernity* (New York: Bloomsbury, 2013)의 서론 참조.

(blood/sanguine), 담즙질(yellow bile/choleric), 우울질(black bile/melancholic), 점액질(phlegm/phlegmatic)이 있다. 이 중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담즙질은 창조적이고 불같고 열정적인 한편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Jackson 487-89).

또한 지금 화자가 배정받은 방이 정확히 어떤 방인지 분명하지 않다. 아이들이 놀았던 곳에서 환기문제와 습기까지 겹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는 ‘누런 냄새’로 묘사된다. 이런 점으로 인해 혹시 소변을 지러놓은 곳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이 노란색으로 응집되는 다양한 병적인 이미지들이 중첩된 것이 화자가 위치한 방이며 이 노란색의 이미지는 고스란히 벽지와 연결된다. 화자는 벽을 자꾸 들여다보다가 아예 그에 더욱 더 집착하게 되고 그 벽에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집약되어 있음을 직감한다.

외진 곳에 수용된 첫날, 화자가 벽지에 대해 관찰한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방의 여기저기에서 찢겨나간 흔적이 있는 벽지에서 받는 끔찍한 혐오와 모순의 느낌이다.

살면서 이보다 더 좋지 않은 벽지를 본 일이 없다.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뺏어가는 무늬패턴 중 하나는 온갖 예술적 죄악을 범하고 있다.

그 패턴은 너무 칙칙해서 눈이 따라가다 보면 혼란스럽고, 또 너무나 다짜고짜 식이어서 계속 짜증스럽게 자극하는 바람에 자세히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다리를 절 듯 머뭇거리는 그 불확실한 곡선들을 조금 따라가 보면 느닷없이 자살이라도 하듯 터무니없는 각도로 탈선하여 들어본 적도 없는 모순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한다.

색깔은 혐오스럽다 못해 거의 구토가 나올 지경이다. 부글거리며 타고 있는 듯 때가 탄 노란색이 천천히 이루는 햇살에 이상하게 빛이 바래 있다.

I never saw a worse paper in my life.

One of those sprawling flamboyant patterns committing every artistic sin.

It is dull enough to confuse the eye in following, pronounced enough to constantly irritate and provoke study, and when you follow the lame uncertain curves for a little distance they suddenly commit suicide -- plunge off at outrageous angles, destroy themselves in un-heard of contradictions.

The color is repellent, almost revolting; a smouldering unclean yellow, strangely faded by the slow-turning sunlight. (649)

위의 묘사 한 장면만으로도 이 작품은 특이한 맥락의 벽지에 대한 탁월한 묘사이자 화자와 작가가 마주한 모순적이고 비예술적인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통렬한 은유를 성취한다.

벽은 한편으로는 사회가 쌓아놓은 외벽이지만, 달리 보면 여성 화자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 남편에 대한 사랑과 걱정, 자식에 대한 염원 등을 버무려 만든 벽돌을 하나씩 쌓아올려 축조한 것일 수 있다. 벽은 ‘보호’이면서도 ‘구속’이다. 벽은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관계의 의미를 심화시켜 주면서도 다른 공간으로부터 차단하고 분리함으로써 관계의 확장을 방해한다. 그 벽에 ‘벽지’를 발라 미화하지만, 벽지를 통한 다양한 노력들이 미적 기능을 상실하는 순간이 온다. 그 과정에서 개인이 벽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틈에 그 자신이 벽 자체의 구성요소가 되어 그 벽을 견고하게 지탱

시켜주는 보충재이자 결합재로 작용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복잡한 패턴이 각인된 벽지의 세상은 현기증이 날 만큼 시작과 끝이 알 길 없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화자의 의식 속에 떠다니는 인간관계 상의 언어로 치환하면, 거의 ‘자살’이라고 불리도 좋을 만큼 기이한 단절이 만연해 있기도 하다. 어떤 연속성이나 법칙을 무시한 것처럼 도무지 그 의미를 알 길 없는 벽지 무늬 패턴의 양상 앞에서 화자가 여전히 어떤 일관된 초점을 잡아내지 못해 무거운 생각과 감정의 요란한 소란을 겪고 있지만 그 혼란한 경험은 일기로 기록되면서 일정 부분 정돈된다.

벽지 면을 따라 가로 세로로 확장해가는 화자의 관찰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그 벽지가 단일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며 거기에 또 다른 아래쪽 패턴(sub-pattern)이 깔려 있으며 그 안에 어떤 형상이 살금거리며 기어다니고 있음을 발견하면서이다(650). 그 패턴 뒤의 그 형상은 수그린 채 기어다니는 여성의 모습을 띤다(652). 그리고 그 벽에 달빛을 받아 창살의 그림자가 덮이면서 창살에 갇힌 채 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여성의 형상이 각인된다.

달빛이 비치니 — 달이 뜨면 온밤 내 달빛이 비쳐 드는데 —
그게 같은 벽지인지 모르겠는걸.

여명, 촛불, 램프불, 그리고 그 중 최악은 달빛인데, 그 어느 빛이 비쳐 들든 밤이면 그것은 창살이 된다. 그러니까, 바깥의 패턴 말이지. 그리고 그 뒤에 여자가 있다는 건 분명 틀림없지.

오랫동안 그 안쪽 패턴 뒤쪽에 보였던 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 확실히 그것은 여자야.

By moonlight -- the moon shines in all night when there is a moon -- I wouldn't know it was the same paper.

At night in any kind of light, in twilight, candlelight, lamplight, and worst of all by moonlight, it becomes bars! The outside pattern I mean, and the woman behind it is as plain as can be.

I didn't realize for a long time what the thing was that showed behind, that dim sub-pattern, but now I am quite sure it is a woman. (653)

‘논리적’, ‘이성적’, ‘정상적’ 시각으로 보면, 저 밤하늘에 달이 떠 있고, 그 달빛이 비쳐드는 창살이 이쪽 벽에 있고, 저쪽에 벽지가 발린 벽이 있고, 또 그 사이 방안의 공간에 한 여성이 각각 따로따로 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달빛, 창살, 그림자, 여성이 하나로 겹쳐 벽면에 완성되는 이 장면은 정신착란의 순간일 수 있는 동시에 ‘시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시적인’ 성취가 되려면, 이 결합된 요소들을 다시 각각의 의미 요소들로 분리할 수 있는, 즉 새로운 의미의 창조를 위해 이질적인 요소들을 탄력적으로 결합하고 분리하는 작업이 수행될 수 있을 때일 것이다.

화자가 성취하면서 묶이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아직 화자에게 이 ‘시적인’ 순간은 인식의 해방을 위한 전조이기보다는 ‘알 수 없음’의 체계들을 통해 세상의 요소들이 공고히 결합되어 축조된 억압적 ‘창살’에 가깝다. 이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체계에 부딪혀 형성되는 화자 안의 생각과 정서가 뭉치고 다져져서 창살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즉, 주인공의 외면/내면의 (부정적) 상호작용의 결과가 창살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화자가 벽지를 뜯어내고 그 안의 여성을 밖으로 당겨내면서 이를테면 바로 앞에서 살펴본 소위 ‘시적인’ 형상화 단계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간다.

달빛이 비추고 그 가련한 것이 기면서 그 패턴을 흔들기 시작하자 나는 일어나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다.

나는 잡아당기고 그녀는 뒤흔들었다. 그 다음에는 또 내가 흔들고 그녀는 잡아당겼다. 그리고 아침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여러 야드 길이에 이르는 벽지를 뜯어내고야 말았다.

As soon as it was moonlight and that poor thing began to crawl and shake the pattern, I got up and ran to help her.

I pulled and she shook, I shook and she pulled, and before morning we had peeled off yards of that paper. (655)

이런 정신착란의 순간에 이어 벽지를 온통 다 뜯어내 난장판이 된 장면에 놀라 쓰러진 남편이라는 존재 ‘위’로 화자가 기어 타고 넘는 기괴한 장면은, 앞서 살펴본 ‘시적인’ 장면이 양가적이었듯, 정신착란의 절정이자 동시에 화자의 저항이 말과 비유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으로 쟁취된 순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의 오싹한 해방감이 계속 문제적인 것은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이 화자의 방 안에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화자의 ‘비정상성’의 감각과 인식은 이제 방을 벗어나 세상으로 확장된다. 방 안의 벽지는 이제 저 바깥세상 전체를 도배한 것으로, 방 안의 벽에 드리운 창살은 창살을 통해 내려다보는 세상 위를 덮은 거대한 창살의 네트워크로, 여기의 화자는 저 바깥세상의 위를 기어 다니는 수많은 여성들로 확장된다.

‘벽’을 둘러싼 ‘비정상성’과 ‘창조성’의 경계 탐색과 「누런 벽지」가 남긴 과제

화자의 행동 양식은 ‘일상적 차원의 비정상성’과 ‘예술적 차원의 창조성’의 경계 탐색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주인공 화자는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을 통해 미와 의미를 창조해 내는 통상적 의미에서의 예술가는 아니며 그녀에게 예술가로서의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그녀의 글쓰기 작업은 일상의 정상성과 씨름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을 뒷받침해 주는 데 필수적인 주변 상황과의 탄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신의 목적과 의도의 지속적인 관찰과 성공에는 미치지 못하고 불안한 심리 증상을 계속 노정하고 있으면서도,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부딪혀 나가는 예술의 중요한 단면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다. 화자는 자신이 위치한 복합적인 질문들의 맥락을 인식하고 그 질문의 층위들을 온전히 분별해 내지 못한 상태로나마 예상치 못한 진실에 가 닿기도 한다.

「누런 벽지」에서는 화자의 상황을 둘러싼 생각과 정서의 제시가 여러 겹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독자들이 화자를 통해 지금 보고 듣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을 경우 화자의 언어와 의식을 통해 정돈되지 않은 채로나마 펼쳐지는 복잡한 묘사와 의미의 층을 놓치게 된다. 이것은 화자가 의식적으로 교활하게 말장난을 하거나 무엇을 은폐하려고 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

다. 지금 화자의 시선과 생각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서술에서 발생하는 생략, 누락, 중첩 등의 현상은 화자가 소위 ‘정상적인’ 범주에서 얼마간 비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독자들이 현재 벌어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오해와 착각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진실에 눈뜨기도 한다. 사실, 화자의 경우를 통해 앞서 살펴보았듯, 일상의 시공간에 축조된 ‘정상성’을 ‘비/반정상성’의 렌즈를 통해 굴절시켜 다시 배열하고 축조하는 작업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문학과 예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어떤 새로운 의식, 새로운 형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구조의 생산을 향해 나아간다. 심리 증상은 한편으로는 진단과 처방이라는 사회적 통제 수단을 요청하는 원인적 현상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역으로 이런 증상 자체가 그런 판정을 내린 억압적 현실에 대한 저항의 형태인 측면이 있다. 존재가 의식·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에 휩쓸리고 질병의 영역에까지 발을 들여놓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존재가 그런 비정상적 현상의 언저리를 탐색하다 심지어 그 질병 안으로 포획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그 병적인 심리 증상이야말로 억압된 자신의 진실한 감정들이 표출되는 유일한 통로이자 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Mish 983). 이런 지점이 바로 여성성과 병리적 이상행동의 긴밀한 연관이 추출되고 여성성과 광증이 유의어로 수렴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Ussher 64).

이 작품의 복합성은 화자가 처한 억압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쉽게 귀납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억압의 일차적 대상은 화

자이지만, 좀 더 큰 맥락에서 볼 때 화자가 마주하여 인지한 벽은 화자에게만 존재하는 벽이 아니다. 창살 밖의 세상, 달빛, 창살 창문, 벽에 드리운 그림자의 조합은 바깥의 세상과 화자의 방 모두가 창살을 통해 연계됨을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간혀있는 방뿐만이 아니라 창 바깥의 세상까지도 창살을 통해 구획되고 축조된 감옥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비정상성’으로 추동되는 화자의 사고의 움직임은 ‘벽’을 부수는 데 집중되기보다는 그것을 타고 이동하면서 ‘벽’이 있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녀의 시선은 벽지 위의 그로테스크한 무늬를 따라가고 다시 그 벽지 위에 달빛에 비친 창살의 그림자가 겹쳐 그려내는 패턴을 따라간다. 이 움직임은 창살을 거쳐 바라보이는 창밖 세상 위에 드리운 창살의 패턴으로까지 확장된다. 그녀의 시선이 따라가며 드러내는 그로테스크한 패턴은 가부장제의 틀에 따른 도식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넘고 화자와 그녀의 감시 역할을 하는 제니(Jennie) 사이의 손쉬운 이분법을 넘어 끝없이 확장된다(Hume 481-2).

이 작품의 결말 부분에는 여전히 모호함이 존재한다. 이야기의 전체 틀인 ‘비밀 일기’의 형식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일정하게 변형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해체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 화자가 기록하는 언어는 지금 현재적 행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바로 동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벌어진 것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후자라면 화자는 종국적으로 치료가 된 상황인

지 아니면 여전히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화자가 이제는 비밀 일기만이 아니라 어떤 글쓰기마저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 이제는 종이라는 실체적인 지면이 아니라 오로지 상상 속에서만 기록하는 것이며 제시된 마지막 장면들 역시 오로지 상상된 것일까.

이와 같이 「누런 벽지」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진실을 다른 아님 화자의 글쓰기로부터 온전히 추출하기 어렵게 하는 서술 형식상의 여러 의문들을 남긴다. 물론 이 의문들에 함축된 여러 현실적 문제들은 단순히 서술 형식상의 구성 요소에 주목해서만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문들은 지금까지 화자의 이야기에 극적 긴장을 더해주며 도달한 작품의 마지막 대목 이후에는 이제는 바깥세상의 현실에서 또 다른 차원의 실천적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단서일 것이다.

다만, 벽지를 다 찢어내고 바닥을 기는 화자의 극단적 상황으로 인해 놀라서 기절한 남편 위를 화자가 아무렇지 않게 기어가는 결말의 장면이 비록 섬뜩할지언정 일종의 ‘성취’의 장면으로 보이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이 서술형식상의 모호함이든, 아니면 실제 글쓰기든 상상에 의한 ‘시적인’ 성취든, 이전과 다른 힘을 갖춘 화자가 지금까지 간혀있던 틀을 비로소 부수고 나온 장면일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결말의 모호함을 언급하였듯, 「누런 벽지」가 여주인공에게, 그리고 작가와 독자에게 어떤 발전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작품이 어떤 명확한 정답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기존의 견고한 창살과 벽, 그리고 벽지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 때

로는 담대하고 전투적이며 또 때로는 탈주(脫走)하는 동력이 더없이 근본적이지만, 이 과정에 따라붙는 글쓰기와 상상력에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기울기가 있다면 현실과 상상의 적절하고도 탄력적인 경계에 대한 끊임없이 탐색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든지 이 작품의 여성 화자가 어렵사리 드러낸 ‘벽’과 ‘벽지’의 관계의 다층적 의미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 작품에서 동일한 벽에 안착된 벽지와 그 위에 각인된 수많은 의미들은 모두 동일한 층위의 의미와 기능이 아니다. 그리고 화자는 중국에 그 의미 부여의 겹 자체를 뜯어내 벽의 생경한 모습을 드러낸다. 작품의 결말 이후에는 과연 어떤 과정이 진행될 것인가. 과연 억압의 의미 구조가 더 이상 숨지 못하게 파괴의 대상을 한층 더 분명히 할 것인가, 혹은 그 위에 새로운 벽지를 입히고 다른 의미를 엮을 것인가. 벽 앞에서 수없이 글쓰기와 상상력의 곡예를 벌인 화자의 행적은 여성이 놓인 현실의 모순과 맞서는 과정에 관한 실천적 은유를 제공한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총체적으로 치료하는 도정(道程)에 사회의 표준화된 ‘정상성’과 서사에 이질적으로 끼어들어 마치 낡은 벽지를 뜯어내듯 균열을 일으키는 「누런 벽지」의 여주인공의 목소리는 중요한 깊이와 울림을 더한다. 「누런 벽지」의 여주인공이 여성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편견과 통제로 인해 겪는 고통을 그야말로 온몸으로 처절하게 써내려간 이야기는 총체적인 치유가 가능한 세상을 꿈꾸고 기획하는 진지한 시도들에게 긴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논 문 투 고 일: 2024.07.30.

□ 심 사 완 료 일: 2024.08.19.

□ 계 재 확 정 일: 2024.08.19.

참고문헌

- 손정희, 「길먼과 글쓰기: 새로운 가정성을 통한 여성주체의 치유 모색」, 『영미문학연구』 29 (2015): 85-110.
- 안동현, 「「누런 벽지」와 19세기 후반 미국사회의 여성」, 『근대영미소설』 12:1 (2005): 52-74.
- DeKoven, Marianne. *Rich and Strange: Gender, History, Modernism*. New Jersey: Princeton UP, 1991.
- Delchamps, Vivian. “‘A Slight Hysterical Tendency’: Performing Diagnosis in Charlotte Perkins Gilman’s ‘The Yellow Wallpaper’ ” *Performing Hysteria: Images and Imaginations of Hysteria*. ed. Johanna Braun.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05-22. [Originally in *Faculty Authored Books and Book Contributions*, 177 (2019)]
- Doran, Sabine. *The Culture of Yellow: Or, The Visual Politics of Late Modernity*. New York: Bloomsbury, 2013.
- Gilman, Charlotte Perkins. *The Living of Charlotte Perkins Gilman: An Autobiography*. New York: Appleton-Century, 1935.
- . *The Yellow Wallpaper And Selected Writings* (Hachette Digital, 2009)
- . “The Yellow Wall-paper. A Story,” *The New England Magazine*. 11:5 (January 1892): 647-57.
- . “Why I Wrote The Yellow Wallpaper?” *Forerunner* 4:10, Greenwood Reprint, 1968.

- Hume, Beverly A. "Gilman's 'Interminable Grotesque': The Narrator of 'The Yellow Wallpaper'," *Studies in Short Fiction* 28.4 (Fall 1991): 477-84.
- Jackson, William A. "A short guide to humoral medicine," *Trends in Pharmacological Sciences*, 22:9 (2001): 487-9.
- Mish, Kathleen. "Psychological symptoms as expressions of 'rebellious' thoughts in Charlotte Perkins Gilman's 'The yellow wallpaper'," M.A. dissertation, Lehigh Univ., 2007.
- Treichler, Paula A. "Escaping the Sentence: Diagnosis and Discourse in *The Yellow Wallpaper*".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3:1/2 (Spring-Autumn, 1984): 61-77.
- Ussher, Jane M. *Women's Madness: Misogyny or Mental Illness?* Hertfordshire: Harvester Wheatsheaf, 1991.

Gilman's "The Yellow Wallpaper": Exploring the Boundary Between 'Abnormality' and 'Creativity' in Confronting the 'Wall'

SHIN Hyunwook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KNOU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wall' in Charlotte Perkins Gilman's "The Yellow Wallpaper," explore the boundaries between 'abnormality' and 'creativity,' and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these explorations within the context of women's oppressive realities. "The Yellow Wallpaper" has been regarded as a powerful source of inspiration for women's liberation and feminist approaches to reading and writing.

As a significant early work in American feminist literature, "The Yellow Wallpaper" addresses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issues of women associated with the so-called 'rest cure.' The 'rest cure' prescribed to the protagonist in the story reflects the author's own experience after being diagnosed with 'postpartum depression' following the birth of her daughter Katharine. This treatment, marked by a distinctly oppressive bias that dictated women should limit

themselves to domestic life and avoid intellectual activities, instead drove the author into deeper mental deterioration. Gilman warns of the dangers inherent in the gender-biased thinking that this prescription provoked and reinforced.

This paper seeks to explore how the protagonist's 'abnormality' can be connected to 'creativity' in the urgent process of writing, and further, how it might allow her to dream of a world beyond the 'wall.' First, the paper examines the work's form, which unfolds in the style of a secret journal, then considers the protagonist-narrator's situation, the significance of the 'wall' and the boundaries between 'abnormality' and 'creativity' confronting it, and finally, the feminine 'truth' revealed through this entire process.

| **Key Words** | wall/wallpaper, rest cure, abnormality, creativity, feminism